

2023. 8. 17.(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8월 16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부서 :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도 시 철 도 과 장	김지형	2133-4331
도시철도총괄팀장	임국현	2133-4333
뉴 미디어 담 당 관	이종선	2133-6480
시민참여운영팀장	오현민	2133-6530

홍보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6매

서울시 창의행정 1호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한 달만에 이용자 100만 명↑

- 7.1. 최초 도입 이후 한달간 누적이용자수 '100만명' 기록, 시민 부담 12.6억원 경감
- 일평균 3.2만명 이용, 초행길이 많은 주말 이용 비율이 평일 대비 60% 높아
- '상상대로 서울' 시민의견 수렴 결과...“만족도 90%, 이용 희망 97% 달성”
- 시, 이용시간 연장 등 시민들의 의견 청취하여 발전방안 모색해 갈 것

서울시는 <창의행정 1호> 정책으로 도입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누적 이용자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일 제도시행 이후 한 달만에 나타난 성과이다.

- 서울시는 2023년을 “민선 8기 창의행정”의 원년으로 삼고, 그 첫걸음으로 지난 3월 113건의 일상 속 시민불편 해소 아이디어를 발굴, 14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한 바 있다.

- 그중 창의행정 1호로 채택된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서울시가 관할하는 1~9호선 및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시범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다.
-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는 지하철 이용자가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을 경우 10분 내 재승차할 경우 기본운임을 부과하지 않고 환승을 1회 적용해 주는 제도로, 요금환불 및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하는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 서울시는 지난 7월 한 달간 이용데이터 분석 결과 일평균 3.2만 명, 한 달간 백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였다고 밝혔다. 기본운임(1,250원) 적용시 한 달간 12.6억원의 시민 부담이 경감되었다.
- 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해 보면, 제도 도입 이전 10분 내 재승차자수는 일평균 2.8만명(’23. 3월 기준)이었으나, 제도 도입 이후 10분 내 재승차자수는 일평균 3.2만명으로 16% 증가하였다. 이는 제도 시행에 따라 기존 비상게이트 이용자들이 정상적으로 게이트를 이용하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 또한 전체 지하철 이용자 수 대비 ‘10분 내 재승차’ 이용자 비율은 주중 0.18%, 주말 0.29%로 주말 이용비율이 평일 대비 60% 높게 나타났다. 출퇴근 등 고정된 구간을 이동하는 평일과 달리 주말에는 초행길을 이동하는 시민들이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긴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 ※ 7월 일평균 승차건수(수도권)/10분내 재승차 건수 : (평일) 1790만건/3.3만건(0.18%), (주말) 1100만건/3.2만건(0.29%), (전체)1560만건/3.2만건(0.21%)
 - ※ 요일별 일평균 10분내 재승차 이용자수 : (월)31,169건, (화)24,156건, (수)25,782건 (목)26,614건, (금)30,056건, (토)36,331건, (일)27,38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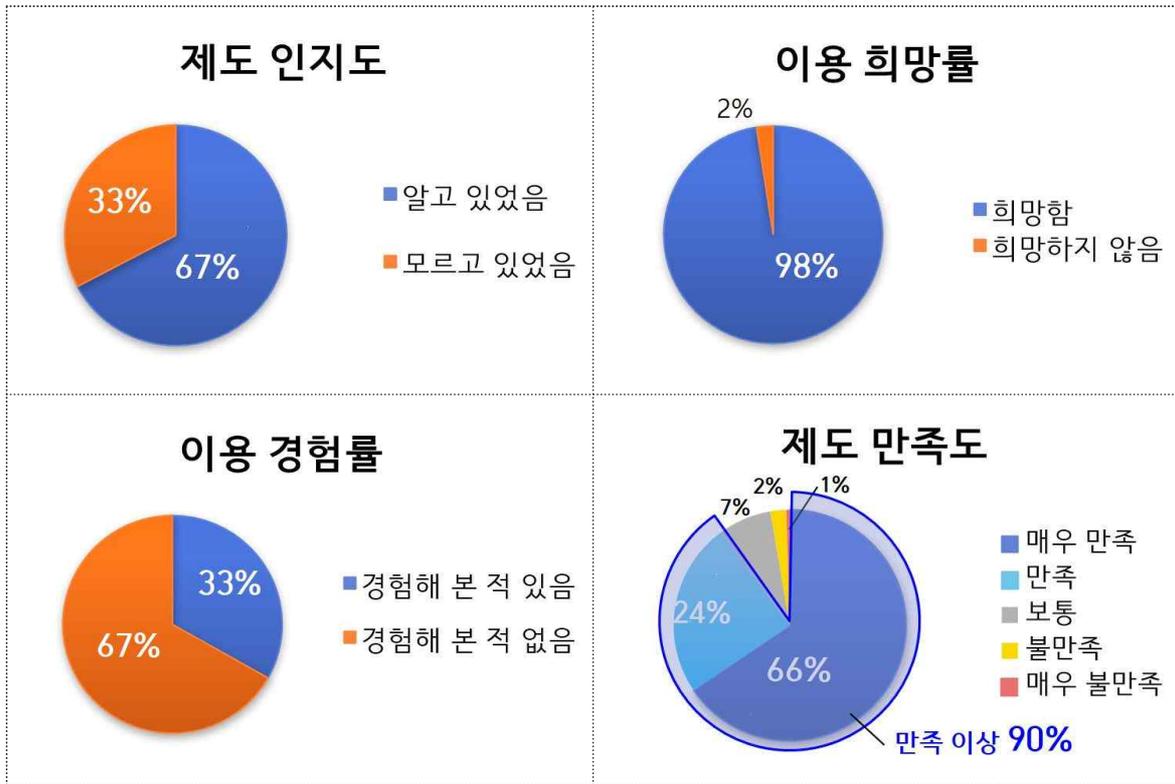
- 10분 내 재승차 제도에 대한 시민 반응도 뜨겁다. 서울시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인 ‘상상대로 서울’ 의 공론장 ‘서울시가 묻습니다’에서 7.26.(수) ~ 8.8.(화) 14일간 총 2,643명의 시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도 만족도는 90%(매우 만족 65.5%), 제도 이용 희망 비율은 97.5%인 것으로 조사됐다.
 - 제도 만족도는 매우 만족(65.5%) > 만족(24.4%) > 보통(7.4%) > 불만족(2.25) > 매우 불만족(0.5%) 순으로 조사되었다. 만족 이상이 전체의 90%에 달하였고, 그 중 매우 만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이용 희망률은 97.5%로 거의 모든 시민들이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었으며, 그 외 제도 인지도는 67.3%, 제도 이용 경험률은 33.2%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10분 내 재승차’ 관련 2,643명의 시민 중 1,644명이 주관식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그 중 464명의 시민들이 재승차 적용시간 연장을 요청하였다. 서울 1~9호선뿐 아니라 코레일, 경기, 인천 등 다른 구간에도 적용해 달라는 요청도 106건 있었다.
 - 적용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464명의 의견 중 15분으로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분으로 연장 필요(109건), 30분으로 연장 필요(57건) 순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코레일, 경기, 인천 등 다른 구간에도 적용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106건 있었다.
 - 그 외 대다수 시민들은 제도 도입으로 기존의 불편했던 점이 개선된 것을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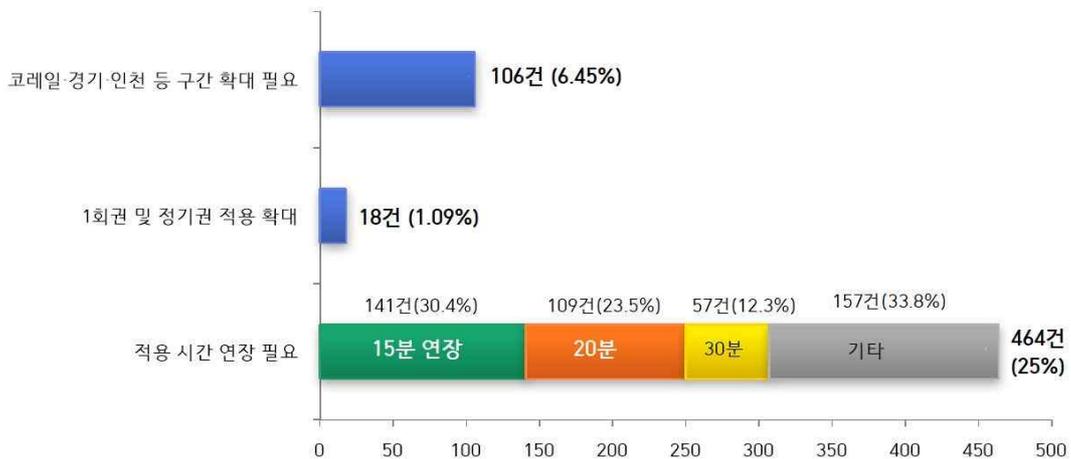
- # 좋은 제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가끔 즐다가 내려서 요금 다시 지불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정책을 계기로 너무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지하철이 서울 구간만 10분 재승차 무료 되는 것을 경기도·인천과 협력하여서 수도권 전 구간에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 시간에 쫓겨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탄 걸 알았는데 급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그때마다 버튼 눌러서 직원과 통화하고 넘어가는 게 번거롭고 민망했어요. 특히 화장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더더욱이요. 10분 재승차 혜택 반갑고 감사합니다.
- #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던 터라 진심으로 좋다고 느낍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서 잘못 타는 경우가 많은데 빨리 정식 시행되길 바랍니다
- #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항상 지하철을 잘못 타고 잘못 내려서 고생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날렸는데 좋은 정책이 시작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 # 5살 아이와 주말에는 지하철을 이용하기에 화장실 문제가 골치였는데 부담 없이 내려서 화장실 이용 후 지하철을 다시 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 # 그동안 역방향으로 잘못 타거나 내렸을 때 급한 상황에서는 역사에 관계자가 벨 호출을 받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재승차 카드를 찍고 반대편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당황할 필요 없이 반대편으로 가면 되어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특히 제 부모님이 타실 때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날 일일 텐데 이런 정책 변화에 감사드립니다.

- 서울시는 이번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이용시간 연장, 적용구간 확대 등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시민불편사항을 과감히 혁파한 서울시의 창의사례로서, 도입 한 달 만에 이용자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그간 불편을 겪고 있었던 시민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창의행정을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추진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교통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 사 : 「상상대로 서울」 내 ‘서울시가 묻습니다’ 공론장
- 기 간 : '23.7.26. ~ '23.8.8. (14일간)
- 참여자수 : 2,643명



기타 주관식 의견 (주관식 의견 응답수: 1,644건)



※ 기타: 단순 시간 연장 필요 의견 등



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 환승적용 안내



최초 승차 이후 목적지를 지나쳐 반대방향으로 건너가거나 긴급용무(화장실 이용 등)를 위해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 부과 면제** (환승적용)



적용방법 집표(하차 태그) 후 **10분 이내 재개표시**(승차 태그) 환승 적용 (환승횟수 1회 차감)

* 하차 후 10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1,250원) 부과

적용원칙 •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

* 환승역의 경우 같은 호선 재승차시에만 적용

(예시)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2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4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불가로 기본운임(1,250원) 부과

•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

•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 가능**

적용구간 1~9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관할 구간

1호선 (지하)서울역 ~ (지하)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 ~ 오금역

4호선 진접역 ~ 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 ~ 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 ~ 온수역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 전구간

* 적용구간
사전확인 필수

적용카드 선·후불 카드 (1회권, 정기권 제외)

적용기간 2023. 7. 1. ~ 2024. 6. 30. (1년간 시범 실시 후 정식 도입 추진)

문의 서울교통공사(1577-1234)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02-2656-0009) 고객센터, 각 역 고객안전실(역무실)

